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이 아니다

성경말씀: (*) 딤후2:11-13

지난 몇 주에 걸쳐 재림의 징조 설명: 유대인 회복, 이슬람 확산, 적그리스도의 통치, 단일 세계종교, 노아의 날, 롯의 날, 유전자 조작, 과학의 발전 등,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

특히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시122: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한국의 역할이 있다고 가르친다. 성경에 한국이 나온다고. 특히 재림 때에

(*) 유튜브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한 민족은 꼬레아인가”(사55:5)

한국 메시아닉 선교방송(3년 전 21만 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어떤 신학자도 언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실마리를 제시하다!!!”,

“이 동영상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키(Key)를 가진 동방의 한 민족을 분단시키고, 공산화하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의 복음의 싹을 잘라버려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예언을 사탄이 차단시키려 했다는 것을 이사야 55장과 로마서 10장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야기이다.” “브랜드 TV를 보십시오.”

어떤 독자의 블로그: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으며 이분의 설명이 옳습니다. 저의 고집과 반항을 회개하며 무릎 꿇어 저의 틀림을 인정합니다.”

주장의 주인공 윤순현 목사, 이방의 한 민족, 25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사

동영상,,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한 이방 민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한 이방 민족을 쓰신다.” 사회자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면서 시작

주장: 로마서 10장, 2000년 동안 어떤 설교자도 이것을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못하였다.

10장 18-21절에 나오는 한 민족이 누구인지 모른다.

1999년 12월 31일 자정, 김대중 대통령이 종각에서 종을 치면서, 우리나라는 정동쪽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38도 이스라엘 35도,

(*) 동서의 기준 겔38:12 이스라엘 기준,

(*)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겔38:12)

네가 폐허였다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곳들과 여러 나라들에서 돌아온 백성, 곧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 중앙에 사는 자들에게 네 손을 들어 칠 때에(바른 성경)

네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과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두리니(킹제임스)

그래서 우리는 극동, No! 우리는 단순히 아시아의 동쪽

(*) 사55:5, 한 나라를 부를 것이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개역)

이제 너는 네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희 하느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공동).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네가 부를 것이요, {주}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네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킹제임스).

주장: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로 간다.

55:6이 핵심이 아니라 5절이 핵심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 55절의 부른다는 말: 카라, 부르는 자, 명사 코레, 주님의 이름 여러 가지 중 ‘하’

‘코레아’가 된다. 그러면 한국이 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하면 그들이 말을 못한다.

한국 즉 코레아의 뜻을 그들은 모른다.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55:10-13). 이 말은 핵심이 코레아가 성취된다.

롬10의 마지막 부분, 초림 예수님 죄 문제, 재림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은 자물쇠, 이를 열려면 키가 있어야 한다. 그 키가 또 다른 민족이다.

(*) 롬10:13-15에 나오는 복음 선포자는 개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모세 시대에 예언된 말씀,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 사도 바울이 발견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런 민족으로 세운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을 우리 민족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그 키 민족이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재림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

공동 분모: 한국 교회 안의 비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 1948년 8월, 북한 48년 9월

사탄은 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안 된다. 이방인 한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당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48년 9월 9일에 공산화

남북문제: 어려움,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

그 이방 민족이 한국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고 함. 들어보면 그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의 샴니즘 수준의 이야기: 21만 회, 2000년 동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리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사야서에는 한국이 안 나온다. 미국도, 성경 정체에도.

55장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

(*) 55장 1-3,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심,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간음 죄 용서

(*) 4절을 보자. 여기의 그는 메시아 혹은 다윗, 모든 주석이 같음

5절을 보자, 여기의 너는 메시아, 한 민족, 이방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민족들이 메시아에게 달려나옴
여기에 어디 코레아가 나오는가?

성경으로 성경 풀기, (*) 이사야서 65장 1절

롬10:20, 이방인들의 회심, 존 길, 엘버트 반즈, 매튜 헨리 모두 이방인들의 회심(호2:23)

로마서 9-11장,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맞는다.

그런데 10장에는 율법과 복음의 설명, 11-13 차별이 없다,

14-15절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한다.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 들으려면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이런 철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복음 선포자는 이방 민족, 한국이 아니다. 눈을 찧고 살살이 봐도 없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 교리이다.

(*) 19절: 이스라엘의 불순종, 20절: 그 결과 이방인들의 구원(사65:1),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순종
그러므로 사55:5, 65:1의 한 민족은 메시아가 부르실 때에 반응하고 달려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뜻한다.

그 동영상 밑에는 한국 메시아닉 교회 소개가 있다.

“한국 메시아닉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본인 메시아닉 유들과 같은 신앙의 노선을 걸으며, 초대교회의 유산인 토라(율법)와 예배(안식일, 절기)를 회복하고 반 유대주의와 대체신학을 거부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죄인이 오직 예수아 마쉬아흐의 피를 통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언약(Ketubah)으로 주신 자유케 하는 토라(율법)를 기쁜 마음으로 지킵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났다.

(*) 롬10:1-4

(*) 갈4:1-4

유튜브, 메시아닉 유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동방의 독수리 사상과 14만 4천

과천 청계산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는 사람들도 있음

무언가 열심이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성경 안에 특히 이사야서 안에 한국 민족이 있다고 믿음 한국은 선민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함, 한국의 소종파 사이버들의 특징은 일단 한국 민족을 특별히 선택받은 동방의 독수리로 보며 그중에서도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계시록의 14만 4천으로 규정하여 성도들의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한다.

과거의 전도관, 안상홍 증인회, 박무수 목사 등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동방의 구원자로 등장하신 안상홍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방의 구원자이신 안상홍님께서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 66권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영적 고레스이신 안상홍님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사46:11)

부산OO교회 박O수,

만일 여러분이 거짓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여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요일4:1, 잠13:20). 교회에 가면 흔히 구약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4단계 회개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고후3:14).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니 '동방의 독수리'를 바르게 깨달아 설교하는 분이 없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를 사람'입니다(사46:11).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라고 말한다. 영해의 대가

동방의 독수리는 워낙 유명해져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대호라는 작가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것은 안철수를 연상케 하는 18대 대통령 한철주를 주제로 한 미래소설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한민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의 후예로서 미래에 동방의 독수리로 세상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는 성지 중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신앙의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고 지중해 서편에서 동방으로 이동해 온 위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 경천동지할 사건: 독수리에 대한 번역 변화: 개역개정판

킹제임스 성경처럼 사나운 날짐승, 그래서 더는 동방의 독수리가 안 됨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인가?

(*) 사41:2-3, 사41:25

(*) 사46:11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메대/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대왕이다.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말한다.

(*)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44:28-45:3

14만 4천은 누구인가?

(*) 계7:4-8

4절을 보라. 4절이 말하듯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명백한가?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환난기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유대인들이다.

성경에서 이방인을 가리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라고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은 자기들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의 14만 4천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면서도 육체를 입고 영생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한때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는 앵글로 색슨족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2지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런 사상이 넘어간 뒤에는 이방인(미국인)이면서도 유대인 행세를

하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이런 부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한민족이 혹은 한민족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동방의 독수리로 둔갑하고 그런

단체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극단적인 이들은 심지어 구원받으려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결론: 성경의 예언에는 미국, 영국, 한국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사야서의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한 민족은 한국이 아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이다.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 시대에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주 즉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

(*) 휴거의 소망

(*) 살전4:13-18